

예산읍 대회리의 상여 놀이와 훌름음식

상여 훌름 놀이 : 이한용 (1952년생)

이한용 선생은 예산읍 대회리에서 출생하여 지금까지 대회리에서 살고 있다. 한때는 희망원, 시장 번영회에서 시장 관리 등을 해오다가 지금은 청송사라는 작은 법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의 만가는 익히 이미 알려져 있어 쉽게 만날 수 있었다. 그를 찾은 것은 만가와는 비슷하지만, 그 성격이 다른 상여놀이를 인터뷰하기 위해서였다.

상여놀이는 예산 지역에서는 ‘상여를 으른다’ 또는 ‘상여를 흐른다’ ‘상여를 훌른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상여놀이는 초상이 나면 출상할 때 상여를 나가게 되는 데, 그 전날 밤에 빈 상여를 꽃으로 잘 단장하고 망인이 돌아다녔던 마을을 돌아다니며 노는 놀이를 말한다. 본래 초상이란 슬픈 일인데 이 과정을 ‘놀이’라고 표현하는 데 이것은 죽음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하는데도 불구하고 행해지는 것은 여기는 한국이의 정서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정서에는 저승이란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비록 이승만은 못하지만 현세에서 이루지 못한 행복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세관은 이승에 있는 사람들이 저승으로 보내는 상례에 잘 나타나는데, 상여놀이는 이승의 화려한 삶을 저승에 선보이는 행위이다. 또한 이한용 선생에 따르면 저승 가는 길에 방해꾼을 미리 제거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한다. 그래서 온통 귀신이 난동하는 밤에 상여놀이를 행한다고 한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슬픔에 잠겨있는 상주의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 각설이라든지 유희패를 불러 놀았다는 곳도 있지만, 예산에서는 보지 못했다 한다.

이한용 선생이 요령과 만가, 상여놀이를 배우게 된 것은 운명이라 했다. 26,7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22살 정도였다. 당시에는 예산 읍내에는 유씨 할아버지(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았고 모두들 유씨 아저씨라 불렀다 한다)라는 아주 유명한 요령잡이가 있었다고 한다. 그는 충남에서 도 유명할 정도로 여기저기에서 불려 다녔다고 한다. 청도 좋고 시시 상황에 맞는 ‘발림’이 일품이어서 상도꾼들이 후렴 추임새가 좋아 상주들이 만족했다고 한다.

그런데 26년전에 이한용 선생의 부친이 돌아가시게 됐고, 마침 그분이 와서 상례를 도와주셨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옛 장례 풍습을 이어가는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염습을 해야 했는데, 사람이 없어 유씨 할아버지를 도와 직접 하게 됐다고 한다.

그 뒤로는 사람들이 초상이 나면 이한용 선생을 불러 염습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 하나둘 그를 불러 하는 수 없이 가서 장례를 도왔다고 한다. 70년대 말에 도청에서 발행하는 염사 자격증도 땄다. 그러다보니 유씨 할아버지와 접촉이 잦았고 어느덧 그 할아버지의 만가가 귀에 익숙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유씨 할아버지의 권유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됐는데, 그가 일일이 만가를 공책에 적어주었다고 한다. 이때 상여놀이도 함께 배우게 됐다. 그러던 중에 유씨 할아버지가 없자 사람들이 자신을 불러 하게 했는데, 그 청이 뛰어나다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의 만가는 불교에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그렇게 시작한 요령잡이 벌써 40여년이 됐다.

- 상여놀이의 정확한 명칭은 뭐죠? 저희 동네에서는 상여 으른다 라고 하는데..

- 대개 상여 흐른다 라고 하지.

그의 말대로 용어를 정하는 데, 예산의 상여 놀이 이름을 ‘상여훌름’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흔히 이러한 ‘상여흘름’은 호상을 당했을 때 거행된다. 호상이란 적당한 죽음이란 뜻인데, 평생을 복을 누리며 특별한 병치레 없이 오래 산 사람의 죽음이란 뜻이다. 출상 때 나가는 상여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 상여흘름은 속칭 ‘놀이’가 벌어진다.

놀이란 흥을 말하고 흥은 신명을 말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요령잡이가 방울을 훈들고 ‘가마 꾸밉시다’ 하면서 상두꾼을 모아 꽃상여를 꾸미게 한다. 이렇게 되면 제청의 슬픈 분위기는 한순간에 바뀐다.

이때부터 바빠지는 것은 아녀자들이었다. 흘름음식을 준비해야하는 데 이 음식이 상두꾼들을 어떻게 만족시키느냐에 달렸기 때문이다. 상두꾼들은 놀이의 주인공들이요, 상둑꾼들의 흥이 없으면 이 놀이는 의미가 없다. 상두꾼들의 흥을 통해 상주가 바라는 바를 얻어야하기 때문이다. 상두꾼들의 흥은 대개 상주가 내놓은 재물(대개 돈)이나 음식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 상여놀이를 하는 집안은 대개가 잘살거나 복록이 대단한 집에서나 이뤄지기 때문에 초상이 나면 돼지부터 잡는다. 예전에 돼지를 잡는다는 것은 명절이나 잡았기 때문에 부자의 척도는 돼지 잡는 수를 보고 정하기도 했다. 그래서 상두꾼들의 입맛을 맞출 수 있는 분들이 뽑혀가기도 했다. 흘름 음식을 도맡아 했다는 대술면 시산리의 할머니 얘기를 들으면 대개 몇몇이 짹을 이뤄 다녔다고 한다. 그들은 초상이 나면 으레 짹을 지어 음식을 했다.

- 흔하잖아. 부잣집이니까 음식이 흔하니까 맘껏 쓸 수 있지.

이 흘름 음식은 대개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한 가지는 돼지찌개였고, 또 한 가지는 동태두부찌개였다고 한다. 대대 초상음식은 거칠어야하는 데, 이 음식만은 충분한 양념과 고기를 넣어 맛을 내는 잔치 음식이었다 한다.

이렇게 초상집에서 잔치 음식이 차려지고 상여가 꾸며지면 횃불잡이들이 길잡이 할 태세를 갖춘다. 그리고 요령잡이가 꽃가마를 메고 갈 상두꾼들을 부른다. 이때 부르는 만가는 출상 때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때는 망자의 입장에서 상주들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는 투로 진행하거나 저승길 방해하는 귀신들을 달래는 투로 발림을 한다. 이때 발림은 주로 상주들이나 친척들을 불러 어르고 달래 상두꾼의 노잣돈을 받는다. 나온 돈으로 마을 사람들은 마을 돈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쓰인다.

가다가 힘들면 잠시 쉬는 데, 이때 뒤쫓아 오던 흘름음식이 나와 상두꾼들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쉬다 가다 망자가 돌아다니던 마을을 한바탕 돌다가 다시 상가로 돌아오면 상여 뒤를 따라가던 상주들은 미리 가서 상여를 맞이하고 제물을 차려놓고 곡을 하며 상여꾼에게 술을 대접하게 된다. 이렇게 상여놀이는 끝이 난다.

그의 상여놀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장례문화가 바뀌어 지금은 부르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필요하면 달려간다. 이것이 돈벌이가 아니라 작은 사명감으로 이어가고 있다. 그것이 운명인지 봉산에 나갔다가 마을에서 전해오던 100년이 넘은 요령을 얻었다고 보여준다. 봉산의 한 마을에서 지금까지 보관하며 마을에서 쓰였는데 이제는 요령을 잡을 사람이 없으니 필요한 사람이 써야한다며 그에게 준 요령이었다. 소리도 낭낭하고 지금하고는 결이 다르다며 자랑까지 곁들이지만, 자꾸 없어지는 장례 풍습에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게 보였다.

밤새도록 제청에서 슬픔에 잠긴 상주를 위로하는 가무극놀이를 하고, 출상 때는 사신(死身)을 처녀가 가마을 타고 시집가듯이 꽃상여에 태워 풍악을 울리고 저승길로 호송하는 풍속이 바로 그것이다.

옛날에는 호상(好喪)시에 이른바 ‘상여놀이’라 하여 출상 전날 밤에 상주의 계꾼들이 빈 상여를 메고 <상여소리>나 춤을 추면서 동리를 돌아다니는 놀이가 있었는데, 그것을 황해도에서는 ‘생여도듬’이라 하고, 강원도·경기도·충청도에서는 ‘손모듬’ 또는 ‘걸걸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또한, 경상도에서는 ‘개도둔’, 전라도에서는 ‘대뜨리’ 또는 ‘대어린다’, ‘상여흐른다’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출상 전날 밤은 제청놀이를 하게 되는데, 이는 비통해 하는 상주를 웃기기 위하여 주로 재담이나 노래 그리고 우스운 병신춤을 추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놀이를 전라남도 진도에서는 ‘다시래기’라 부르고 있다.

상여놀이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예로서 황해도에서는 북과 장구를 치면서 상여를 메고 아들·딸의 집 등을 돌고, 경기도와 충청도에서는 아들·딸·친척·친구 집 등을 도는데, 골목길에 횃불을 켜고 골목길을 밟게 한다. 그런데 상여가 공동우물을 지날 때는 우물을 덮고 지나가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마을을 돌아다닐 때 상여 뒤를 따라가던 유족들은 자기 집에 다가가면 미리 가서 상여를 맞이하고 제물을 차려놓고 곡을 하며 상여꾼에게 술을 대접한다. 경상도에서는 집밖에 넓은 터나 집안 마당에서 북을 치고 <상여소리>를 하는가 하면, **전라도에서는 상여꾼이 출상연습을 겸해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놀이에서 <상여소리>는 대체적으로 죽은 이의 인품이나 성격, 공덕 등을 나타내거나 망자의 유언을 전달하기도 한다.

상여놀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사람에게 벗짚을 씌워 말이 되게 하고, 상주를 태워 돌아다니다가 친구들이 번갈아 가며 상주를 희롱하는 연기를 하기도 하고 웃기는 등, 노래와 재담

과 춤으로 여흥을 한다. 예로서 ‘진도다시래기’인 경우, 첫째과장에는 가상제(假喪制)가 상제 앞에서 희롱하고 웃기는 놀이를 하고, 둘째과장에서는 소경인 거사와 중, 사당의 삼각관계에 얹힌 이야기를 풍자한 놀이를 하고, 셋째과장에서는 <상여소리>와 북춤, 그리고 허튼춤 등을 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청에서의 여흥놀이는,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통과의례(通過儀禮)라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마을사람들의 공동체적 삶의 의지 같은 것이 담겨 있는 예능이라 할 수 있다.